“청소년 치유하는 교직원으로 거듭나자”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창립 25주년 기념법회

6월 17일, 부산안국선원 법당서
감사패 수여·불자교사 공로 치하
수불 스님 “청소년 나침반 되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저희 교사들이 부처님의 참된 법을 배우고 익혀 부처님의 사자로서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걸음걸음이 모범이 되어 청소년 불자의 가슴에 보리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가 6월 17일 부산 안국선원 법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며 발원문을 통해 지혜와 자비의 스승이 되어 청소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보리심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독송으로 시작해 발원문 낭독, 내빈소개, 경과보고 순으로 이어졌으며 회장 인사말 및 감사패 증정, 축사가 진행됐다. 감사패는 허은정 자림회 회장, 김시애 반야회 회장, 조은영 선생이 수상했다.

행사에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시명스님을 비롯해 김경희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 김화연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 김익수 사무총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 백명숙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과 각 학교 교장 및 교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축하했다.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를 믿는 선생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더욱 정진하셔야 한다”며 “배우고 익히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깨달음 얻어 청소년들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희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법회를 봉행하지 못하고 힘들고 우울한 시간을 견뎌왔다”며 “3년 만에 선(禪)의 도량에서 여러 선생님을 뵙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참석해주신 모든 불자 교사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문을 해주신 수불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치유를 안겨주는 교직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가 6월 17일 부산 안국선원 법당에서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화연 전국교직원불자연합회 회장은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준 이곳 부산에서 불자 교사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다”며 “25년 동안 한결같이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활동해온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선생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부산교사불자회를 전신으로 출범했다. 부산교사불자회는 1976년 8월 박정자 교장을 비롯한 부산초등여교사 모임인 반야회를 필두로 각 지회를 조직해 운영되어왔다. 1996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 이후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1998년 7월 18일 창립됐으며, 양원식 회장(前 해동고등학교장)을 초대회장으로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해왔다.

통도사, ‘호국영령’ 넋 위로하다

현충시설 공식지정 이후
호국영령 위령재 두 번째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6월 17일 경내 설법전에서 ‘제2회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

통도사는 지난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현충시설로 지정됐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위령재를 거행해 한국전쟁 중 산화한 수많은 호국영령과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봉행한 ‘제2회 호국영령 위령재’에서 주지 현덕 스님이 헌다를 하고 있다.

행사는 불공에 이어 법요식이 진행됐다. 법요식은 △개회 △삼귀의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반야심경 △경과보고 △헌향 △헌다 △헌화 △봉행사 △추모사 △법어 △추모노래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천도재를 통해 통도사는 호국영령의 영가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주지 현덕 스님, 수좌 명신스님, 기획국장 선혜 스님을 비롯해 안현숙 울산보훈지청 보훈과장, 이정곤 양산부시장, 윤영석 · 김두관 국회의원,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김승훈 39사단 119보병여단장, 박기수 6.25 참전용사 학도병 1기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위령재에서 지안 대종사는 “부처님은 나라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삼보의 은혜, 중생의 은혜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가르치셨다. 그중 나라의 은혜는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은혜로 국토 보전의 구심점이 되고 애국심의 원천이 된다”며 “호국영령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대승보살의 바라밀다행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호국불교의 정신은 위기극복의 근간이 되어왔다. 나라를 지키고자 희생한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 억울하게 생을 마친 수많은 민초들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호국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하는 일은 다시 통도사의 역할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진 신도회장, 이순희 울산보훈지청장, 나동연 양산시장,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한편, 통도사는 그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육군병원 분원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 2020년 1월 17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의무사령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같은 해 3월 증언과 자료를 취합한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역사 고증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0년 12월 17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분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받았다. 2021년에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받았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11월 1일 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지정 통보를 받았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자성악단 ‘무루인(無漏人)’ 창단 공연

찬불가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한 불자 성악가 모임 ‘무루인(無漏人)’의 공연이 펼쳐졌다.

무루인은 6월 16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무루인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다. 무루(無漏)는 번뇌와 망상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며, 테너 김화정, 바리톤 조창준, 바리톤 추현철이 결성한 찬불가 단체다. 이번 창단 공연은 독창곡으로 만들어진 찬불가의 원곡을 불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잊힌 찬불가 명곡도 다시 소개하는 시간이 됐다.

공연은 1부 찬불애창곡을 독창으로 선보였으며, ‘무소유의 노래’ ‘산사의 저녁’ ‘마음’ ‘낮은 목소리’ 등 12곡을 공연했다. 2부에서는 무루인 남성중창팀이 애창 찬불가를 메들리로 들려주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진보라 피아니스트와 김정일 기타리스트가 협연해 무대를 더욱 풍요롭게 했다.

김화정 테너는 “그간의 활동에서 서로 합창이나 중창으로 찬불가를 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불자님들에게 창작한 원곡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마다 새로운 찬불가가 나오고 사라지는 것을 본다.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도록 찬불가를 알리고 작곡가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남포교사단, 2023년 분야별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이 6월 17일 경남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2023년 포교사 역량 강화와 분야별 시상식 및 연수프로그램을 개최했다.<사진> 연수프로그램은 명상에 관한 특강이 진행돼 현대 포교에 어울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적용 활동 사례를 포교사들에게 안내했다. 특강 후 포교사들은 각 총괄팀별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토론으로 포교에 대한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연수에는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박해덕 단장, 성주사 법안 스님, 안정임 부단장, 강의수 부단장, 경남지역단 포교사 150여 명이 동참했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중생의 아픔을 함께하고 보리를 구하는 불자로서 덕목을 알고 지키기를 바란다”며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비를 실천하는 포교사로 성장해 포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해덕 단장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포교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 포교에 임해야한다”며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정법으로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는 포교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미륵암,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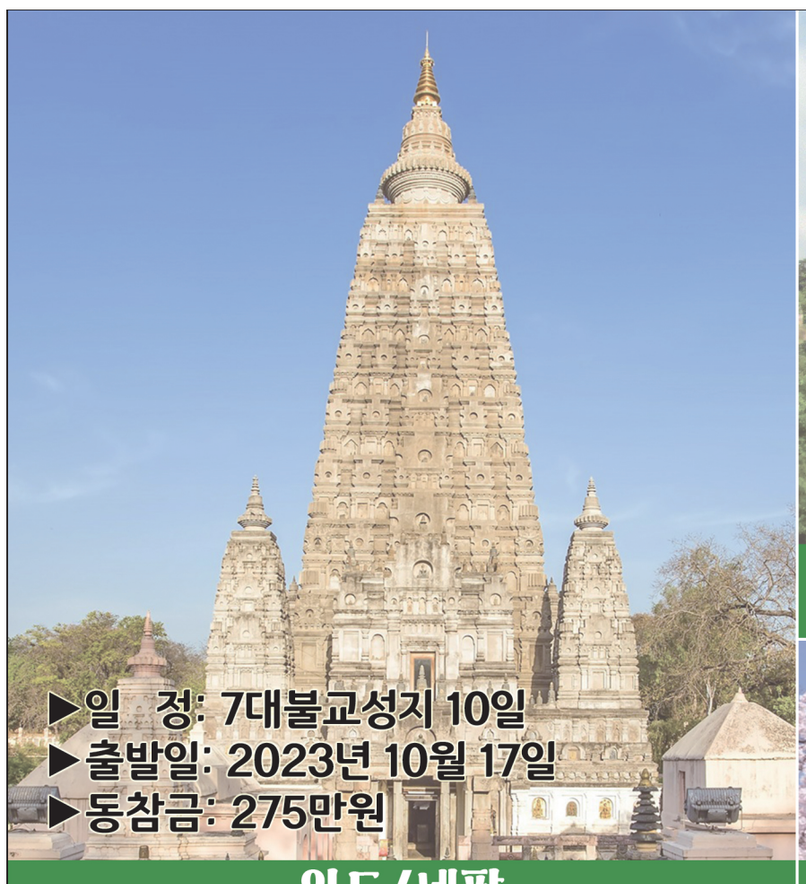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이 6월 19일 남해 삼동면 일대에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孝) 경로잔치를 개최했다.<사진>

경로잔치는 지역불자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100여 명의 어르신을 초청해 점심을 공양하고 관광 등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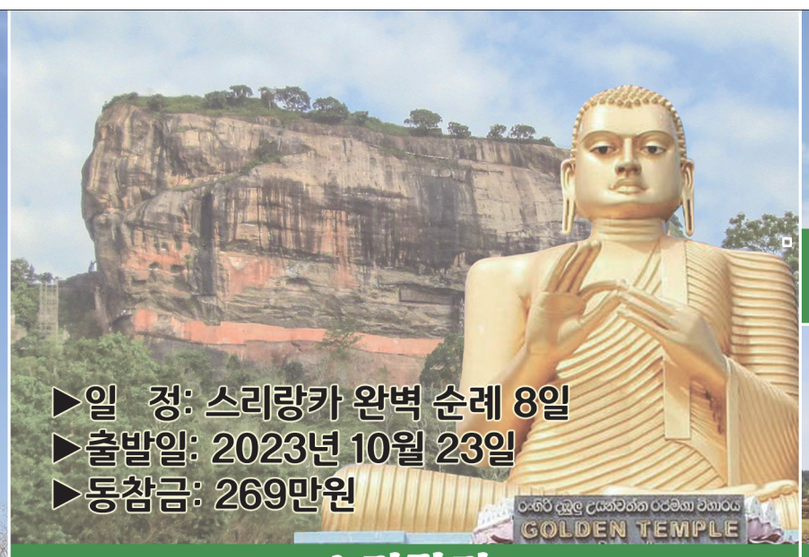
청운 스님은 “불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위해 경로잔치를 진행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이웃이 건강하고 행복해 지역사회가 밝아져 불심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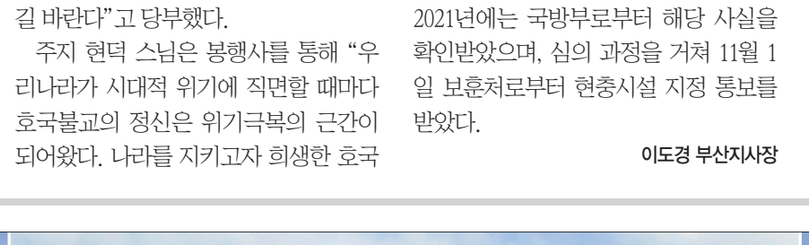
성낙두 경남지사장



인도/네팔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 열반에 이르기까지



스리랑카
남방 불교의 보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일본(오사카/나라/교토)
백제 불교문화가 남아있는 관서 지역 성지순례


대만 5일
대작불사 “불타기념관” 순례
₩ 1,490,000원 부터

베트남/캄보디아 6일
인간이 만든 신의 도시 앙코르와트
₩ 1,590,000원 부터


라오스 5일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탓루앙
₩ 1,290,000원 부터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담아 온전히 순례에만 집중합니다.
성지순례를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마하연과 함께!
문의 02-365-7747